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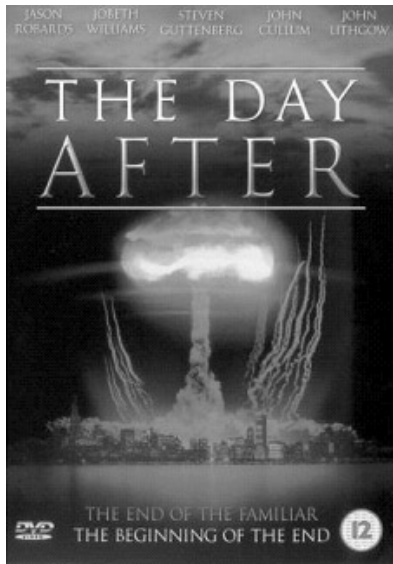


핵겨울의 생생한 악몽 - 그날 이후

원 자력이 영화에서 나타날 때는 그것이 평화적으로 사용되어 경제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여 인류를 행복하게 하고 환경 보존에 기여한다는 형태로는 보통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으로는 영화의 소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코믹이나 액션물에서도 핵은 파괴력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혹은 사용 바로 직전에 주인공에 의하여 아슬아슬하게 작동이 중지되는 미사용의 폭력으로 나타난다. 핵무기나 원전 사고 등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이미지로 주로 나타나는 것이다.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핵의 중성자와 양성자들을 억지로 깨뜨려서 갇혀있던 에너지를 끌어내는 것이니, 이것이 인간 지혜의 개



가인이 자연을 거스르는 행동인가? 인간들이 핵분열 원리를 발견하자마자 그 막대한 에너지를 파괴의 수단으로 삼아 무기를 대량 생산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인류 과학 발전의 대가란 말인가?

핵겨울의 개념을 인식시킨 영화

이러한 핵을 다룬 영화 중에서 가장 엄혹한 핵무기 사용의 비극을 그린 TV 영화가 있다. 그것이 1983년에 미국에서 방영되어 하루에 1억 명 이상의 시민들이 시청했고 사람들을 집단 공황으로 몰아넣었던 「그날 이후(The day after)」이다.¹⁾

이 영화는 1983년 11월 20일 미국 ABC 방송을 통하여 방영되었다. 미국/NATO와 소련/바르샤바조약기구 간의 가공의 핵전쟁을 그리고 있으며, 이를 캔사스의 로렌스 지방의 주민의 시각으로 그리고 미국의 핵미사일 저장고 주변의 몇몇 농부의 시각에서

1) 이 영화는 에드워드 홀 각본, 감독은 니콜라스 메이어이다. 원래 4시간 분량으로 2회에 걸쳐 방영할 예정이었지만 2시가 반으로 편집하여 1회에 방영하였다. 11개의 에미상 후보 지명을 받았고 2개의 에미상을 수상하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사 이론가들은 이 3차 대전 픽션 영화에서 그려진 여러 사건들이 당시 냉전 상태에서 실제 가능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바라보고 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자. 1980년 대 중반. 호전적인 소련 지도부가 군대에 서베를린의 경계로 진군할 것을 명령하고 이어서 장갑차 군단으로 서독을 침공할 것을 결정한다. 같은 시각 미국 캔사스의 로렌스 지방, 미주리주와의 접경 지역에서는 한 가족이 집안 장녀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오크스 박사는 로렌스의 작은 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이들 가족은 일상 생활에 몰두하지만 핵전쟁으로 한결음씩 끌려들어 간다.

소련이 서독의 도시에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하고 페르시아만의 미국 함정을 공격한다. 미국은 곧 소련 함정을 대응 공격하고 그러자 소련은 핵탄두로 NATO의 본부를 공격한다. 지구상의 사람들은 지하실에 방사능 낙진(fallout)을 피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기 시작한다.

캔사스와 미주리주 경계의 핵무기 저장 지하 저장고로부터 핵미사일들이 발사되기 시작한다. 미국 공군 장교는 대륙간탄도탄이 미국으로 날아 들어오고 있다고 발표한다. 이 중 2개의 핵미사일이 캔사스시터를 강타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즉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 낙진의 위험에 노출된다.

이제 주인공 가족들은 황폐화된



이 영화로 인하여 소위 핵겨울(nuclear winter)의 개념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었고, 이것은 핵전쟁의 위험을 한 번 더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전기도 없고 마실 물도 없으며 음식도 없는 세상이다. 온통 방사능과 아사와 기근과 질병들이 창궐하는 지구... 무시무시한 '그 날 이후' 이다.

이 영화로 인하여 대규모 핵전쟁 이후 그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방사능구름에 의하여 혹심한 겨울이 닥칠 것이라는 소위 핵겨울(nuclear winter)의 개념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었고, 이것은 핵전쟁의 위험을 한 번 더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대개 이런 핵공격을 다룬 할리우드 영화는 뉴욕 등 거대 도시가 공격받아 무너진 고층 빌딩 혹은 자유의 여신상 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이에 대응하는 대통령이나 국방성 고위 관리 군대들의 활약을 모습을 그린다. 그러나 이 영화는 미국

캔사스시터²⁾에서 보통 미국사람들에게 닥친 이야기를 그린다.

짐은 핵미사일 저장고 근처에 살고 있는 농부이다. 그는 핵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핵미사일 발사를 목격하게 되고 미국 중산층 '핵' 가족의 시점을 이 영화에서 보여준다. 영화 전반부는 등장 인물들의 묘사와 지구상에서 고조되는 국제 정치적 위기의 진행 상황을 라디오와 TV를 통하여 보여준다.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주인공들의 대응 모습이 묘사된다. 짐은 집의 지하에 낙진대피소를 마련하지만 그의 아내는 핵전쟁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핵무기 고공 폭발을 일으키고 전자기 충격파(EMP) 발생으로 차량 등 모든 전자 기기가 마비된다.

영화 후반부는 로렌스 주변의 황

2) 이 영화는 캔사스시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러한 핵전쟁의 문제가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아님을 인식하고 이를 알리기 위하여 진지하게 많은 엑스트라로 참여하였다. 핵폭발의 버섯구름은 잉크와 페인트를 섞어 물통에 떨어뜨려 그것이 퍼지는 모양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이 영화에서 먼저 핵공격을 하는 측이 미국이 아닌 것이 될 것을 조건으로 허락 협조하였다고 한다.



대개 이런 영화는 핵무기의 비참함과 이를 사용하는 악당과 군부 혹은 정치적 세력의 야욕과 비정함과 국제정치 현실의 비정함과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과 행복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등을 대비시킨다. 거대한 폭력 앞에 인간들의 삶과 일상은 무력하다는 것과 모두들 이를 원하지 않는데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야 마는 아이러니를 이야기한다.

폐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오크스 박사는 병원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되지만 비상 발전기가 손상되어 병원은 마비 상태이다. 낙진이 퍼져 하늘이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들이 묘사된다.

2주일 후 낙진은 그치고 방사선 준위는 어느 정도 안전한 수준으로 내려오지만 참혹한 상황은 계속된다. 식량 부족, 치안의 부재, 약탈의 모습들이 묘사된다. 오크스 박사는 자신이 살던 집을 찾아가지만 형체를 찾을 수 없고 불타버린 그의 아내의 시체를 발견한다. 그의 집터 위에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 생존자들에게 물리자줄 것을 요구하지만 거절당한다. 그는 마침내 풀썩 끓어

앉아 울음을 터뜨린다.

마지막 장면은 흑백 화면으로 바뀌고 생존자 혁슬리 교수는 HAM 라디오를 통하여 외부 세계로 메시지를 보낸다. '여기는 캔사스의 로렌스, 누구 없는가? 아무도 없는가? Is there anybody there? Anybody at all?'

'미디어 재앙'

이 영화 방영 후 ABC는 핫라인들을 설치하여 방송과 함께 걸려오는 겁에 질린 시청자들을 진정시켰다. 첫 방송 이후 유명한 과학자 칼 세이건과 보수 성향의 작가 윌리엄 버클리가 출연하여 생방송 토론을 벌였는데, 여기서 세이건은 '핵겨울'의 개념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강대국 간 군비 경쟁을 '휘발유 속에 허리까지 잠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3개의 성냥을, 한 사람은 5개의 성냥을 가지고 대치한 상황'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대개 이런 영화는 핵무기의 비참함과 이를 사용하는 악당과 군부 혹은 정치적 세력의 야욕과 비정함과 국제정치 현실의 비정함과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과 행복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등을 대비시킨다. 거대한 폭력 앞에 인간들의 삶과 일상은 무력하다는 것과 모두들 이를 원하지 않는데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야 마는 아이러니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유추해보면, 만일 서울 정도의 인구 조밀 지역에서 15킬로톤 규모의 핵폭탄이 지표면에서 폭발할 경우 120만명, 100미터 상공에서 폭발시 80만명, 500미터 상공에서 폭발시 60만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지표면 폭발시에는 낙진이 널리 퍼져가게 되므로 광범한 오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더욱 늘게 된다. 낙진의 영향 범위는 풍향에 의하여 결정된다.

재앙의 소식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어디에서 난리가 났다더라' 하는 식의 흥흥한 소문이 퍼져 나갔다. 그러나 실제 눈으로 보지 않음으로 하여 그 심리적 피해는 오히려 적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소규모의 재난도 생생한 영상과 음향이 주는 사실감, 그리고 방송사들의 경쟁적이고 선정적인 보도와 신속한 전파로 인하여 그 피해는 즉각적이고 급격히 늘어났다. 가히 미디어 재앙이라고도 할 만하다. 대량 예금 인출 사태나 생필품 사재기 등을 낳으면서 전파되는 집단적 공황(panic) 상태는 피해자들에게 오래 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긴다.

인기있는 핵 관련 영화들

다시 오늘로 돌아와서 2007년의 지구를 살펴보자. 2006년 10월 북핵 실험이 발표된 이후 미국에서는 핵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CBS의 「제리코 (Jerico)」는 2006년 9월 19일 방영되기 시작한 드라마로서 1000만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 이 드라마는 덴버에 핵공격이 가해진 후 근처 제리코마을에서 멀리 지평선에 버섯구름이 나타나고 모든 통신과 전력이 끊기면서 이 마을을 엄습하는 사회적 심리학적 그리고 물리적인 공포를 그리고 있다.³⁾

9월 25일부터 방영된 NBC의 「영웅들(Heroes)」도 1400만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고 한다. 두 드라마 시리즈는 모두 북한의 핵실험

이전에 제작된 것이지만 방영된 지 불과 수 주 만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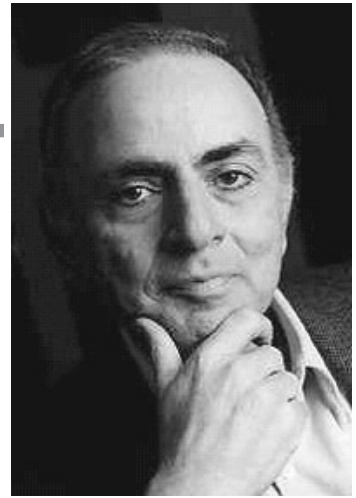
「영웅들」은 자신도 모르게 초능력을 가진 것을 알게 된 주인공들의 인류를 구하기 위한 활약상이 줄거리인데, 시간을 여행하는 한 주인공이 미래의 핵폭발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이 드라마는 18~49세 성인 프로그램 가운데 시청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과거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 사이 핵전쟁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종종 등장한 이후 한 동안 뜸했으나 20여년 만에 핵전쟁이 안방 드라마의 인기 주제로 다시 떠오른 것이다.⁴⁾

핵무기 개발을 다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이 인기를 끌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핵전쟁을 본격적으로 다룬 영화나 드라마는 없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등장할 것이 아닌가 한다.

오래 전 가수 김민기는 ‘그 날’이라는 노랫말을 남겼다. ‘꽃밭 속에 꽃들이 한 송이도 없네. 오늘이 그 날일까, 그 날이 언제일까. 해가 지는 날, 별이 지는 날, 지고 다시 오르지 않는 날이...

김민기가 노래하고 있는 그 날, 해가 지고 다시 오르지 않는 날, 이



칼 세이건

‘그 날’이 어둡고 추운 ‘핵겨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 사족

영화 중의 핵공격 장면에는 많은 자료 화면들이 특수 효과와 함께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미사일 발사 장면은 대륙간탄도탄 실험을 담은 미국방성(Pentagon)의 자료 필름에서 인용되었고, 1979년의 극장용 영화 Meteor의 다리 붕괴 장면 등도 사용되었다.

버섯구름은 국방성 자료로부터 구할 수 없어, 탱크의 물속에다가 유성 페인트와 잉크를 피스톤으로 주입하여 카메라를 거꾸로 하여 고속 촬영하고 그 영상을 광학적으로 처리하여 색과 콘트라스트를 역전시켜 만들었다.

소련 대사로 아나톨리 쿠라긴이 나오는데 이는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다. 이 드라마에서 핵전쟁이 일어난 이후 시간대에는 상업 광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광고 없이 방영했다고 한다. ☸

3) 테러와 분노와 혼란이 확산되고 덴버에서 일어난 핵폭발의 낙진이 제리코를 덮치기 한 시간 전 주인공은 방사성 비로부터 주민 보호를 위해 마을사람들을 대피소로 이동시키려 하지만 대피소는 엉망이고 사용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이런 혼란 상태를 그리고 있는 이 드라마는 2007년 2월까지 매주 수요일 방영된다.

4) 지난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더러운 폭탄’(dirty bomb)의 위협을 경고한 HBO의 ‘더러운 전쟁’(Dirty War), CBS의 ‘넘버스’(Numbers)와 핵확산 방지 노력을 다룬 A&E의 ‘MI-5’, 쇼타임의 ‘슬리퍼 셀’ 등은 본격적인 핵전쟁 드라마의 등장을 예고했다.